

##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까지 겸손하게...



김 강 우

- 부산 연제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졸업
- 2021년도 5급 공채 일반행정직 합격

### I. 들어가며

고시공부를 시작하며 먼저 합격한 분들의 수기를 읽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렇게 합격수기를 작성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모든 공부 that 그렇듯이 하나의 정해진 길은 없기 때문에 제 수기를 읽어 보시고 괜찮다고 생각되는 방법은 직접 해보시되, 아니라고 느끼신다면 과감히 넘기시기 바랍니다. 수기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 II. 제1차시험 준비

5급 공채 제1차시험의 핵심은 헌법도 중요하지만 PSAT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지면이 한정적이기에 PSAT에 관하여만 서술하였습니다. PSAT시험은 높은 점수로 합격하면 좋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합격 커트라인을 넘기는 것입니다. 물론 높은 점수를 받고 싶다고 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며, 노력과 결과가 반드시 비례하는 시험이라고도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 내에서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극대화한다면 충분히 합격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PSAT시험에서 중요한 능력은 자신이 약한 문제는 피하고 강한 문제는 확실히 푸는 선구안입니다. 선구안을 기르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분석해보며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약하고 강한지를 익혀야 합니다. 최근 PSAT의 일반행정 직렬 커트라인은 75점 정도로 형성되고 있는데, 산술적으로 4문제 중 3문제만 맞히면 됩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풀고 맞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고, 그런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합니다.

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4번의 1차 시험과 3번의 2차시험에 응시했고, PSAT 평균점수는 매해 커트라인보다 1~3문제 정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점수가 안정적인 점수는 아니었으나 4회의 PSAT에서 합격권의 점수를 받은 것은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PSAT공부는 제 습관이나 버릇이 강해 인터넷 강의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문제풀이를 통해 스스로 노하우를 터득하고자 했습니다. PSAT은 1차시험 2달 전부터 기출과 모의고사를 풀며 준비했으며, 한 달 남은 시점에서는 매일 언어, 자료, 상황 한 세트를 풀거나 추가로 한 과목의 세트를 더 풀었습니다. PSAT을 준비하며 터득한 노하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출분석을 통해 강점과 약점을 먼저 파악하고, 문제당 길어야 20초 이내에 풀 수 있는 문제인지, 풀 수 없는 문제인지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모든 문제를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어떤 문제를 읽어보지도 못하

고 시험이 끝났는데 다시 읽어보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매우 경계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풀기 약한 유형의 문제는 과감히 넘기되, 문제의 1회독이 끝나면 다시 어려웠던 문제를 건드려보는 방식으로 시험마다 모든 문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종료 후 어려웠던 문제를 다시 보아도 절대로 짧은 시간 내에 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실제시험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 풀릴 것 같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5분이상 시간이 낭비되는 것은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따라서 어렵다고 느껴지면 이 문제를 굳이 풀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우선 다른 문제를 보고난 후 나중에 다시 보겠다는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셋째, 시간이 부족해 문제를 찍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최소한 보기는 모두 읽고 찍도록 노력했습니다. PSAT시험은 객관식이므로 찍은 문제 중에 몇 문제가 맞고 틀리느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번호만 보고 찍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적어도 보기와 선지는 읽어서 절대 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선지는 제외하거나, 선지플레이로 그나마 높은 확률의 답안을 찍었습니다. 덕분에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찍은 문제의 적중률은 적게는 25%, 높게는 33%까지 나왔기 때문에 매해 PSAT의 커트라인을 넘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읽고 찍을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확실히 푸는게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한 문제를 확실히 푸는 것은 쉽지 않고, 찍는 것에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는 것이 정답률을 훨씬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물론 어떤 방법이 옳다고 할 수는 없기에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목별 공부방법이나 풀이법은 저보다 뛰어난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Ⅲ. 제2차시험 준비

#### 1. 행정법

행정법은 고시생들이 처음 접했을 때 가장 생소한 과목일 것이라 생각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기에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한 번 읽고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전공자가 아닌 이상 매우 드물 것입니다. 행정법은 인터넷 강의의 예비순환과 1순환을 따라가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따로 행정법 교과서를 사서 읽거나 하지 않고 제가 수강한 강의의 기본서를 반복해서 회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시 시작 초반부에 행정법과 경제학을 함께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또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과목에 매일을 투자하면서 복습하며 따라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혹여나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나만 이렇게 이해가 안되고 어려운지 자책하신 분들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자신감을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처음 순환을 따라갈 때 추천드리고 싶은 것

은 당장 암기를 하지는 않더라도, 주요 내용들의 두문자를 미리 따두는 것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제한된 시간동안 생각을 거치지 않는 수준으로 빠르게 모든 것을 답안에 쏟아내야 합니다. 이 때 두문자로 암기한 내용들은 거의 자동으로 서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두문자를 반드시 연상할 수 있는 단어로 따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조금씩 만들어 두시길 권합니다. 두문자를 따두시면 시험까지 적어도 수십번은 마주하게 되실텐데 굳이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저절로 기억나는 수준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두문자의 효율성을 나중에 깨달아서 미리 많이 해둘걸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강의를 듣고 행정법 기본서를 반복회독 하더라도 100%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카페, 메일로 문의하시거나 주변에 행정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충분히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은 넘기시고 계속 공부를 하고 반복하여 보다 보면 이해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이해도 중요하지만 행정법의 기본은 끝없는 반복 암기라고 생각합니다.

#### 2. 경제학

행정고시는 경제고시라 불릴 정도로 경제학의 중요성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역시 불합격한 해의 원인과목은 경제학이었고, 합격한 해의 원인과목도 경제학일 정도로 중요도는 컸습니다. 경제학은 다른 과목들과 다르게 답안의 논리성, 서술과정보다 정확한 수치

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답안도 출과정을 남들보다 완성도 있게 서술할 수 있다면 적어도 5점에서 10점은 더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술과목에서 5점에서 10점을 올리는 것은 하위권과 상위권을 가를 만큼 실력의 차이가 큰 점수지만 경제학에서는 답안을 조금 더 신경쓰는 것 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도출해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안도출과정을 현출하는 연습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경제학은 잘 알려져 있는 미거시 경제학 교과서를 읽지도 않고 바로 예비순환을 수강하였습니다. 처음 강의를 들을 때는 굉장히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혼자서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강의를 듣지 않은 사람처럼 기억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러한 과정도 공부의 과정이었지만 경제학만큼은 교과서의 중요성이 다른 과목보다 크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때 교과서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었다면 학습한 내용을 익히는데 더 수월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경제학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서 문제풀이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합격한 해 이전까지도 경제학에 대한 명확한 이해없이 반복해서 문제만 풀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김저 거시경제학 교과서를 구해서 보았는데 이 덕분에 그동안 단순히 암기만 했던 내용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시경제학은 다양하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

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지만 거시경제학은 문제풀이보다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과서를 읽어보지 않은 분들이 몇 번 읽어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에 있어서 실제 답안 형식과 같은 작성 연습의 효율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경제학 문제를 풀면서 실제 시험 시간 내에 답안을 완성할 만한 시간이 나오지 않는다면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만 도출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답안도출과정에 욕심내서 많은 내용을 쓰다 보면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은 암기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기 보다는, 내가 실제로 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렇지 않다면 교과서나 강의를 통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은 적어도 고시 공부에 있어서 전혀 모르는 것보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안다고 착각하게 되면 시험장에 가서도 그 내용을 잘 썼다고 뿌듯해하지만, 실제로는 저조한 점수를 받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3. 행정학

행정학은 박경호 선생님의 예비순환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행정학을 읽으며 수업을 복습하였고, 수업은 예비순환에 이어 1순환, 3순환을 따라갔습니다. 2순환 시기

에는 강의를 수강하지 않고 기출해설집을 사서 혼자 실제 시험처럼 기출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3순환 시기에는 최신 사례와 내용을 학습하고, 모의고사를 작성하며 진도를 따라갔습니다. 행정학 서브노트는 1순환을 들으며 만들기 시작했는데, 행시사랑 카페에 있는 서브노트를 토대로 강의에서 배운 내용, 최신사례 등을 채워넣으며 작성했습니다. 특히, 행정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개념과 학자들은 따로 정리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행정학에서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의로만 쓰도록 하여 헷갈리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사례 정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특정 사례들을 골라 보다 자세히 암기하려고 했습니다. 쓸데없이 많은 사례를 아는 것은 실제 시험장에서 써먹기 어려우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행정학과 수업 자료 이외에 다른 교과서나 자료를 구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행정학을 공부하다보면 과목 특유의 뜬구름 잡는 느낌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행정학도 크게 보면 암기과목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제대로 서술한다면 비록 논리가 부족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운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고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무기들을 축적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4. 정치학

정치학 공부는 기본 베이스가 없었기에 예

비순환과 1순환을 따라가며 시작했습니다. 다만, 2순환과 3순환은 수강하지 않고 도란동이 서브노트와 펀더멘탈 교재를 토대로 독학했습니다. 정치학의 서브노트는 따로 만들지 않았고 펀더멘탈을 반복 회독하는 동시에 도란동이 서브노트를 함께 회독하며 펀더멘탈에는 없는 내용을 보충해서 학습했습니다. 펀더멘탈 교재는 다른 교재들보다 두껍지 않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기본서로 읽어도 충분했습니다.

정치학은 비교적 모의고사의 중요성이 낮고, 기출의 중요성이 매우 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년 입법고시와 5급 공채 정치학 기출은 최소 10년치 작성했으며, 5급 공채의 경우 더 이전기간의 기출도 작성했습니다. 정치학에서 기출의 중요성은 다른 과목에 비해 매우 큰데, 그 이유는 정치학에서 출제되는 내용이 가끔 나오는 불의타를 제외하고는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내용을 쓰고, 정리하는 것 자체가 정치학 공부의 대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 기출을 쓸 때 막막하다고 느껴진다면, 모범 답안을 보고 혼자 써보거나 기본서에서 기출의 내용을 찾아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억지로라도 몇 번 쓰는 것은 전혀 쓰지 않는 것보다 매우 큰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정치학은 공부 범위를 넓히면 굉장히 넓어지는 과목입니다. 그렇기에 소위 말하는 불의타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많이 들 합니다. 그러나 불의타 문제는 잘 쓰면 합격의 확률을 매우 높일 수 있지만 합격생 조차도 대부분 잘 쓰지 못합니다. 따라서 완벽히

쓰지 못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학은 행정학과 달리 내용도 내용이지만, 답안의 논리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묻는 내용이 내가 잘 모르는 것이더라도 기존에 공부해서 알고 있는 내용과 연관지어 논리적으로 서술한다면 적지 않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려운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공부한 내용과 엮어서 분량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5. 선택과목

초시의 선택과목은 정보체계론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체계론은 3순환만 수강하면 된다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그대로 했으나 과락의 점수를 받았고, 공부 내용도 잘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해부터는 지방행정론으로 선택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지방행정론은 행정학보다 정해진 물음에 대한 답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훨씬 학습이 수월했습니다. 지방행정론은 예비순환, 1순환, 3순환을 수강하였고 기본서를 토대로 서브노트를 작성해서 최신 내용, 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지방행정론의 모의고사나 기출답안 작성은 소홀히 했는데 이를 다른 과목 공부에 투자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차정도와 두문자정도는 써보시는게 내용을 상기시키는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6. 서브노트

개인적으로 서브노트 작성을 귀찮아했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서브노트를 작성한 과목은 지방행정론 뿐이었습니다. 이외에 경제학과 행정법은 기본서를 토대로 단권화 작업을 했고, 행정학과 정치학은 다른 사람의 서브노트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마저도 재시 이후에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얼마나 서브노트 작성을 선호하지 않았는지 짐작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 경험을 돌이켜보면 가능한 서브노트는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브노트는 결국 시험 전날까지 반복해서 보게 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실제 시험의 답안 작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기만의 서브노트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공부의 효율성에서 적지 않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 7. 스터디

스터디의 가장 큰 장점은 강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였다면 제대로 하지 않았을 답안 작성 연습은 스터디를 통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스터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으며, 스터디를 위한 이동시간과 정해진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단점도 존재합니다. 스터디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 IV. 마치며

5급 공채 시험은 1차 시험인 PSAT을 통과하지 못하면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시험입니다. 그렇기에 PSAT이 불안하다면 2차 시험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

게 줄이고 PSAT에 많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에서도 2차 시험의 실력은 충분하지만 PSAT을 통과하지 못해 미끄러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으며, 그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2차 시험의 실력은 1차 시험 이후 3순환 공부 시기에 가장 많이 늘 수 있기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1차 시험에 안정적인 실력을 가진 사람도 시험 당일 컨디션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1차 시험에 합격한다면 이번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2차 시험 응시 기회라고 생각하고 3순환 시기 동안 모든 노력을 다 쏟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매년 1차 시험 합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2차 시험의 합격자를 보면 간혹 특정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례는 극히 일부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합격자는 평균적으로 모든 과목을 못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하게 됩니다. 즉, 하나의 과목을 유별나게 잘해 붙는 것보다 전 과목을 남들보다 못 보지 않는

것이 합격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취약과목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보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과목도 소홀히 하거나 과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있게 모든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합격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합격한 해에는 3순환 수업을 지방행정론을 제외하고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개인공부를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선택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보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점적인 것은 경제학이었고, 취약과목이었기에 투자는 가장 많이 했습니다.

1차시험의 경우 운이 나빠서 불합격할 수 있으나, 2차시험의 경우 운이 나빠서 불합격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까지 겸손하게 공부한다면 모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족한 저의 수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